



“겉으로는 ‘사회사업’한다면서 뒤로는 복지관 운영비를 가로챈 관장에게서 우리사회에 만들어진 양심의 부재현상을 더욱 절실히 느낄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자신들이 근무하던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숙)의 예산비리 내막을 밝혀내다 일제히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복지관 직원들은 일터를 빼앗겨버린 억울함보다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뿐인 복지관을 사기업화해 사라사욕을

현장의 사람들

찢겨나간 것을 발견하고서부터.

이들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관장 이종숙씨의 비리는 이중 영수증 및 허위장부 기재방법을 이용, 탁아방 아이들의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 후원금횡령에 이르기까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으며 이밖에 지

느꼈던지 복지관 주위에 사람들을 풀어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형편.

“수당도 보너스도 없이 본봉 33만7천원으로 그동안 이곳에서 버텨올수 있었던 것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번동 3단지 주민들과 아이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때문”이었다고 털어놓는 복지관 직원들은 삶은 고구마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던 번동 지역주민들의 소박함을 아쉬워했다.

“사회복지계가 이렇게 썩

“저소득층의 소박한 삶 다시 함께 하고 싶을 뿐”

채워온 관장의 몰염치함에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동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후원금도 재단기금전입금으로 장부에 기록토록 강요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탁아방 어린이들에게 1인당 하루 1천원씩 주던 우유도 1백원으로 줄이고 그 차액을 횡령하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들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장부상의 복지관 운영비 총계정원장이

출사실여부가 불명확한 영수증 처리도 여러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히 밝혀진 관장의 비리사실은 도봉구청의 형식적 감사와 시정조치, 개입하길 꺼려하는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현재 은폐·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관장은 자신의 결백함을 내세워 평소와 다를바 없이 태연하게 복지관을 드나들고 있을뿐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어디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비리사실로 인해 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배미원씨(30·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이들 해고및 정직 근로자 7명은 자신들의 복직과 관장의 비리폭로를 위해 보사부, 근로복지공사 노동위원회, 언론사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숙진 기자>